

파라과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 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406천 km ²	G D P	273억 달러 (2016년)
인구	6.9백만 명 (2016년)	1 인 당 G D P	3,986 달러 (2016년)
정치체제	대통령제	통화단위	Guarani (G)
대외정책	경제실리외교	환율(달러당)	5,691 (2016년)

- 파라과이는 남미대륙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내륙국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1.8배 수준이며, 인구는 2016년 기준 6.9백만 명임.
- 파라과이는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삼림자원을 보유한 농업국으로, 농축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기후 및 국제 농산물 가격 변동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3년 출범한 카르테스 (Cartes)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하에서도 여·야간 국정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친시장 정책을 추진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2016년 헌법개정 및 예산안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부정부패 만연, 게릴라 반군단체 활동, 높은 빈곤율, 치안불안 등의 영향으로 사회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음.
- 파라과이는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로, 경제성장 및 교역확대를 위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베네수엘라와는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e	2017 ^f
경제성장률	14.0	4.7	3.1	3.5	3.6
재정수지 / GDP	-1.4	-0.7	-1.3	-1.1	-1.1
소비자물가상승률	2.7	5.0	3.1	4.1	4.1

자료: IMF.

□ 2017년에도 3%대 경제성장세 지속 전망

- 파라과이 경제는 GDP의 20%,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농축산업과 인접국 브라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기후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브라질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파라과이는 과거 5년 간 연평균 5% 수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특히 2013년에는 농업 호황으로 농축산업이 전년 대비 67% 이상 급성장한데 힘입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1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음.
- 2016년에는 원자재 가격하락 및 브라질 경제침체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업 및 건설업의 양호한 성장과 투자확대 등에 힘입어 3.5%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여 남미 평균 마이너스 2.0% 대비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함.
 - 브라질은 파라과이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며, 브라질 경제성장률 1%p 하락시 파라과이 성장률은 0.5~0.75%p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IMF)되는 등 브라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브라질은 2015년 및 2016년 2년 연속 3%대 마이너스 성장 등 극심한 경제침체를 겪음.
- 2017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브라질의 플러스 경제성장 시현, 투자 확대 및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3% 중반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파라과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페루 4.1%, 볼리비아 3.9%에 이어 남미 국가 중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 브라질은 2015년 및 2016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등 극심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2017년에는 플러스 성장(0.2%)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양호한 재정상황 지속

- 카르테스 정부는 2013년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GDP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을 마련하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파라과이는 최근 수년 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를 1% 내외 수준으로 유지하여 왔으며, 2017년에도 이러한 양호한 재정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수준 유지

- 카르테스 정부는 4.5%±2%의 목표물가수준을 설정하고, 금융정책* 등을 통해 철저한 물가관리를 하고 있는바, 최근 수년 간 물가상승률은 3~5% 수준을 유지하여 목표물가수준을 달성하고 있음.

* 2016년 1월 물가관리를 위해 기준금리 25bps 인상(5.75%→6.0%)을 단행함.

- 2016년에는 식료품 가격 인상 및 과라니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15년 대비 물가상승률이 다소 확대되었으며, 2017년에도 4%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하여 목표물가수준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전망됨.
- 미 달러당 과라니화 환율은 2016년 5,691과라니 수준으로 2015년 5,160과라니 대비 10% 상승하였으며, 2017년에도 과라니화 약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축산업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파라과이는 농축산업이 GDP 및 수출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기후 및 국제 원자재 가격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농축산업이 GDP의 20%,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파라과이 인구의 30% 이상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파라과이는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하여 대부분의 자본재, 중간재,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일례로 수력자원이 풍부하여 잉여전력을 주변국으로 수출할 정도이나, 전력기자재의 99%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임.

□ 기업경영환경 취약 및 인프라 미비

- 세계은행에 따르면, 파라과이의 2017년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는 190개국 중 106위에 불과하여 기업경영환경이 취약한 수준임.
- 또한 파라과이는 도로, 공항 등 주요 인프라가 미비하여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6-2017) 인프라 부문에서 파라과이는 138개국 중 122위에 불과하며, 세부 항목별 순위는 도로 136위, 공항 132위 등임.

나. 성장 잠재력

□ 농축산자원 풍부

- 파라과이는 풍부한 수자원, 비옥한 토지 및 산림자원을 보유하여 농목축업이 발달한 전통적인 농업국임.
- 파라과이의 주요 농축산물은 대두, 옥수수, 밀, 쇠고기 등으로, 대두는 세계 제4위, 쇠고기는 세계 제6위, 옥수수는 세계 제9위 수출국임.

□ 수력발전 발달

- 파라과이는 풍부한 수자원 및 수력발전에 적합한 지형조건 등을 보유하여 수력발전이 발달되어 있는바, 생산전력의 90%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인접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전력산업은 파라과이 GDP의 10%, 수출의 20% 내외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파라과이는 파라나강 (Parana River) 유역에 세계 제2위 규모인 이타이푸 (Itaipu) 수력발전소(발전용량 14,000MW, 길이 7.37km, 높이 196m)를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인근에 자스레타 (Yasyreta) 수력발전소 등을 가동중임.
- 파라과이는 2014년 1인당 전력생산량* 기준 중남미 제1위 (세계 20위권) 전력생산국가이며, 이에 따라 전기료가 브라질 등 주변국 대비 저렴함.

* 1인당 전력생산량: 파라과이 8,204kWh, 아르헨티나 2,929kWh, 브라질 2,847kWh

□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여 인건비 저렴**

- 파라과이는 전체 인구의 70%가 35세 이하로 구성되어 있어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여 인건비가 브라질 등 주변국에 비해 저렴한바, 저렴한 인건비는 투자 진출지로서 파라과이 경쟁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 파라과이 인건비는 월 400달러 내외 수준으로, 인접국인 아르헨티나 등에 비해 35~45% 가량 낮음.

다. 정책성과

□ **양호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목표물가수준 달성**

- 카르테스 정부는 2013년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Law)을 마련하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5% 이내로 양호한 재정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또한 카르테스 정부는 목표물가수준(4.5%±2%)을 설정하여 물가관리를 하고 있는바, 2013년 출범 이후 4년 연속 성공적으로 목표물가수준을 달성하고 있음.
- 2014년 교통 보조금 폐지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최근 수년 간 가장 높은 5%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정부의 목표물가수준을 벗어나지 않음.
- 이러한 정책성과 등에 힘입어 파라과이는 IMF으로부터 재정정책 및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인프라 개선정책 적극 추진**

- 파라과이는 공공인프라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3년 민관협력사업(PPP)법을 제정하였고, 인프라 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3.8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열악한 인프라 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임.
- 과거 정부 시절 인프라 투자액은 연평균 2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카르테스 정부는 출범 이후 2016년까지 도로, 철도, 공항, 전력, 수처리 등 분야에서 43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주하였음.
- 파라과이는 전통적으로 외채도입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나, 2013년 5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최초로 발행한 이후 인프라 개발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채를 활용하고 있음.
- 다만, PPP라는 생소한 사업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과 행정처리 미숙 등으로 발주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산업다변화 추진

- 카르테스 정부는 농축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건설업이 파라과이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음.
 - 건설업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내외 수준으로 낮은 편이나, 정부의 도로, 전력 등에 대한 공공인프라 사업 확대정책 추진과 쇼핑센터, 고급아파트 등에 대한 민간 건설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 연도별 건설업 성장률: 2014년 13.8% → 2015년 4.4% → 2016년 7.5%
- 또한 마킬라제도(Maquiladora Program)를 통한 제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마킬라제도 활용을 위해 브라질 기업 등의 파라과이 내 제조업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
 - * 파라과이에서 마킬라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수는 100개를 상회하고 있으며, 40% 이상이 브라질 기업임.
 - 마킬라제도는 파라과이로 수입되는 자본재, 원자재 등에 대해 무관세 임시 수입을 허용하고, 파라과이 현지에서 추가적으로 조달한 자재와 인력으로 생산된 완제품을 재수출하도록 지원하는 특별제도임.
 -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인 브라질 등으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고, 세계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브라질 시장 진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 마킬라제도를 통한 수출액은 2015년 2.9억 달러로 2014년 대비 14%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3.1억 달러로 역대 최고 규모를 기록하였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e	2017 ^f
경 상 수 지	478	-127	-462	172	-152
경 상 수 지 / GDP	1.7	-0.4	-1.7	0.6	-0.5
상 품 수 지	1,583	928	521	1,253	1,134
수 출	13,444	12,869	10,671	10,884	12,462
수 입	11,861	11,941	10,150	9,631	11,328
외 환 보 유 액	5,556	6,669	5,659	6,559	7,159
총 외 채 잔 액	16,404	17,799	17,691	18,573	18,855
총 외 채 잔액 / GDP	56.6	57.6	63.8	68.0	66.0
D . S . R .	10.9	12.3	14.1	14.5	14.6

자료: IMF, EIU, OECD.

□ 2017년 경상수지 적자 예상

- 파라과이는 농축산업 의존형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후 및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의해 경상수지가 결정되며, 최근 수년간 GDP 대비 경상수지는 1% 내외 수준으로 흑자와 적자를 반복하고 있음.
- 2016년에는 수입감소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규모 확대 등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2017년에는 인프라 투자확대에 따른 수입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폭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상품수지는 13억 달러로 2015년 5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확대되었는바, 이는 수출이 소폭 증가(전년 대비 2% 증가)한 반면, 달러 강세 등으로 수입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전년 대비 5% 감소)한데 기인함.

□ 외환보유액 확대 전망

- 2015년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57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4년 대비 15% 축소되었으나, 2016년에는 외환보유액이 66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카르테스 정부 출범 이후 FDI 확대 및 해외 차입 증가 등에 힘입어 향후에도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6년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은 8개월을 상회하여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외채규모 증가추세 지속 예상

- 카르테스 정부는 2013년~2016년까지 23.8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인프라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채가 확대되고,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외채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3년 57%이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2016년에는 68%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당분간 다소 과중한 외채규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카르테스 정부는 2017년 3월에도 5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예정임.
- 2016년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외채증가에 따라 D.S.R.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 · 사회 동향

1. 정치 안정

□ 헌법개정 등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정치불안 야기

- 2013년 대선에서 중도우파 공화국민연합당의 카르테스 (Cartes) 후보가 당선 되었으며, 카르테스 대통령은 제1야당과 국정운영협약(Governability Pact)을 체결하는 등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였음.

* 집권 여당은 현재 상원 45석 중 19석, 하원 80석 중 46석을 차지하고 있음.

- 카르테스 정부는 야당의 협조를 바탕으로 출범 1년 내에 재정책임법 및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한 PPP법 등 일련의 개혁안 마련에 성공함.

- 그러나 2016년 10월 카르테스 대통령이 재선 의사를 공표하면서 대통령 연임을 위한 헌법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 파라과이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이나, 대통령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개정 문제로 인해 여야간 및 여당 내에서도 의견차이로 분열이 심화되고 있음.

* 차기 대선은 2018년 4월 22일 예정되어 있음.

- 야당은 카르테스 정권이 독재를 지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반대 시위를 추진할 예정임.

- 또한 2016년 12월 의회를 통과한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카르테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017년 예산안 재가결까지 2016년 예산안에 따라 금년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 등 정국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전면 거부한 최초 사례로, 카르테스 대통령은 의회가 수정 가결한 예산안이 국채 발행을 제한하여 국가사업 진행이 어렵고, 공공부문 임금인상폭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함.

2. 사회 안정 (소요/사태)

□ 사회 불안정 지속

- 파라과이 북부 지방에서 활동하는 게릴라 단체인 국민연합군(EPP)에 의한 납치, 경찰에 대한 공격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국경 지대 마약관련 범죄 등으로 치안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정부패가 만연함.

- EPP는 최근 2016년 7월 피랍된 독일계 농장주 아들의 인질 영상을 공개하면서 인질금 등을 요구함.
- 2016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정부패지수에서 파라과이는 총 176개국 중 123위에 불과하며,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지수에서도 파라과이는 범죄 및 부정부패 관련 지표에서 138개국 중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 * 세부 부문별로는 조직범죄 102위, 범죄 및 폭력 관련 비용 107위, 비정기적 지급 및 뇌물 124위, 기업의 윤리적 행동 134위임.
- o 파라과이는 2015년 기준 빈곤율이 22.2%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지방의 빈곤율이 32%로 도시 빈곤율 16%의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와 지방의 불평등이 높은 수준임.
- 카르테스 정부는 파라과이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빈곤문제를 지적하였으며, IMF도 파라과이의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해 빈곤 감축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음.

3. 국제관계

□ 브라질 등 주변국들과 관계 강화 적극 추진

- o 파라과이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큰 바,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카르테스 대통령은 2016년 10월 브라질 테메르 (Temer)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간 협력 관계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2월말 파라과이를 방문하는 아르헨티나 마크리 (Macri)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임.
- o 파라과이는 2013년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경쟁관계에 있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의 옵저버로 가입하여 이념 대립보다는 교역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에 역점을 두고 있음.
- 남미공동시장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가 참여하는 남미 5개국 관세동맹이며,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임.

□ 베네수엘라와는 갈등 관계 지속

- 카르테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정치 및 인권 탄압을 비난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남미공동시장 정식 회원국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베네수엘라와는 마찰이 지속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 OECD, 5등급 유지

- OECD는 2008년 파라과이 등급을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조정 한 이후 현재까지 5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10월 OECD 국가신용도 평가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5등급으로 결정되었음.
- S&P는 2014년, Fitch와 Moody's는 2015년에 파라과이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한 이후 현재까지 등급변화가 없으며, 등급전망은 국제신용평가 3개사 모두 'Stable'을 부여하고 있음.
 - 2014년 6월, S&P는 파라과이의 투자 증대 법안 시행, 양호한 거시경제정책 등을 사유로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상향조정함.
 - 2015년 1월, Fitch는 안정적 거시경제지표, 양호한 외환보유고를 감안하여 BB-에서 BB로 상향조정하였으며, 3월 Moody's도 재정책임법 도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강화 등으로 Ba2에서 Ba1으로 상향조정함.

□ 해외차입능력 비교적 양호

- 파라과이는 2013년~2016년 기간 동안 23.8억 달러의 국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였고, 2017년 3월에도 5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바, 해외차입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2016.10)	5등급 (2015.10)
S&P	BB (2014. 6)	BB- (2011. 8)
Moody's	Ba1 (2016. 6)	Ba1 (2015. 3)
Fitch	BB (2016.12)	BB (2016. 1)

2.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62년 6월 12일 (북한과는 미수교)
- 주요 협정: 문화협정(1975), 과학기술협력협정(1977), 사증면제협정(1983), 무역협정(1988), 범죄인인도조약(1996), 무상원조협정(2011)
- 해외직접투자현황
 - 우리나라의 대 파라과이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6년 9월말 기준 13건, 8,819천 달러로 미미한 수준임.
- 교역규모
 - 우리나라와 파라과이 교역규모는 2억 달러 수준으로 크지 않음.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부품, 전선, 무선통신기기 등이며, 수입품은 곡식류, 식물성물질 등임.

<표 4> 한·파라과이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주요 품목
수 출	203	224	225	124	자동차 및 부품, 전선, 무선통신기기 등
수 입	75	73	20	104	곡식류, 식물성물질 등
교역규모	278	297	245	228	-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파라과이는 2016년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17년에도 3% 중반대 경제성장을 시현하여 남미 국가 중에서는 양호한 수준의 경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물가상승률이 최근 수년 간 5% 이내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도 1% 내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양호한 재정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경상수지는 2016년 수입감소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확대 등에 힘입어 흑자 전환하였으나, 2017년에는 인프라 투자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폭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세 지속, 양호한 재정건전성 유지, 안정된 물가수준 지속 등에 힘입어 IMF는 파라과이의 재정정책 및 거시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카르테스 정부는 출범 이후 야당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대통령 연임을 위한 헌법개정 추진, 2017년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정국불안이 확대되고 있음.
- 부정부패 만연, 높은 빈곤율 및 도시-지방간 불평등, 파라과이 북부지역 게릴라 반군단체 활동 및 브라질, 아르헨티나 국경지대 마약관련 범죄로 인한 치안 불안 등의 영향으로 사회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파라과이는 경제의존도가 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베네수엘라와는 갈등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파라과이의 외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환보유액, 외채 원리금상환비율 등을 감안시 외채건전성 및 외채상환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파라과이는 OECD 5등급,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 또는 BB' 등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차입능력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선임조사역 박대원 (☎02-6255-5705)

E-mail: parkdw@koreaexim.go.kr